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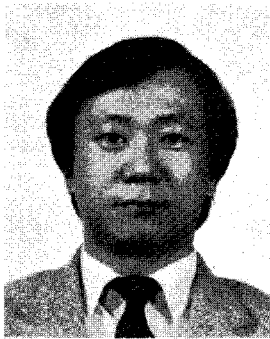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2천년대를 향한 소비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희망산 정묘년을 맞아 전국의 양계인 및 관련자 여러분의 사업과 아울러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산업 전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없었던 3저 상황과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호·불황이 교차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산 전부분, 특히 사료원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산 옥수수 시세가 C&F톤당 86~86불로 1972년 가격 폭락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만큼 곡물 시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여 사료 가격이 몇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축산 부문에서는 4저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즉, 사료값은 2년 동안 13%정도 인하되었으며, 86년도 11월의 가격과 85년도 1월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약 20% 정도가 인하되었습니다.



김 인 식

(주)미원
사료사업본부장, 상무이사

그러나, 축산 전반 부문에 있어서는 그리 밝지 않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해에는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의해 농산물의 수입개방시대를 맞게 되어 일부 배합 사료를 비롯 칠면조고기 및 일부 가금육이 수입개방되므로써 양계인으로서의 국제 시세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경우 아시안게임 때 증가될 물량에 대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입추한 관계로 여름철 한동안 비교적 좋은 시세를 유지하였던 육계시세는 추석과 아시안게임을 맞이 해서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까지 폭락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 3월 잠시동안의 고비를 넘기고 비교적 호황을 누리오더니 육계의 경우에서처럼 추석과 아시안게임을 치루면서 값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말 임신 2개월 된 모돈의 숫자로 집작컨데 올하반기에는 79년도와 같은 불황을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산업부문에서는 3저 또는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흑자를 누렸는데 축산 부문, 그중에서도 양계 부문은 왜 “망했다” “적자다”라고 야단법석을 떨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의 발전 과정은 1963년 산업 근대화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기가 시작된 이래 70년대의 성장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 시절도 있었고 이후 양계산물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양계산업은 축산분야에서는 다른 가축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왔는데 최근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70년대 후반부터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계와 계란 값이 78년 이후 줄곧 하강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계절 변동 등을 거듭하고 있어서 수준 높은 양계 기술과 정보에 의해 이를 대처한 양계인, 또는 어쩌다 운이 좋은 양계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계속된 양계산물의 실질가격 인하로 인해 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양계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닭의 품종 및 사료 과학의 발달로 생산성의 향상은 선진국에서는 서서히 변모하여 왔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몇년 사이에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할 정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기술이 향상되고 생산시설의 확충과 사육수수의 증가에 치중한 결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통체계가 결여되어 생산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안정화는 물론 양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계인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량의 조절과 지속적인 소비 신장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치 않고는 더 이상의 양계산업 발전은 바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88년도에는 세계인의 잔치인 올림픽이 이 곳에서 열립니다.

우리 양계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시대적 요청에 의해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양계 산물을 찾아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계인이 물건을 들고 찾아가 가능하다면 손이 닿는 곳까지 갖다 주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성 높은 양계 산물 생산을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계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시대적 요청에 의해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양계 산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계인이 물건을 들고 찾아가 가능하다면 손이 닿는 곳까지 갖다 주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이나 닭고기 보다는 저장이나 포장이 어려운 야채류 또는 수산물 등도 포장에 의해 소비자가 가까이 있음을 우리 양계인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인이 고집스레 지키고 있는 12개 포장 단위 계란을 핵가족, 신선도,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포장 단위를 다양화시켜 1인당 연간 300여개를 소비하는 제 1의 소비국이 되었음에도 양계인 자신들이 김밥용, 튀김용 등 인스턴트용 계란 제품을 개발 중이라니 우리 양계인도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 소비자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생산성 증대에 기울인 노력과 자금을 소비 창출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진에 의해 태어난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찾는 소비자가 없다면 그것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깨끗한 달걀」「맛있는 고기」「위생적인 건강 식품」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가 국민 모두에게 심어지도록 양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양계산업은 양계인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양계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다산성이며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룩된 현 여건에서는 생산자 수익이 보장되는 한 항상 과잉 생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계 산업여건은 이전처럼 투기산업도 아니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계인 모두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제는 양계산물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가격이 시세를 무시하고 폭등하게 되면 이미 개방된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외국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계인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며 수요에 대응한 노력을 협회를 통하여 이룰 때 우리 양계 산업도 제 2의 도약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양계인은 합리적인 경영과 생산기술의 개선을 통한 이윤추구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양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양계인과의 경쟁은 물론 외국의 양계인과의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정묘년은 우리 양계인에게는 국내외 여건상 생산과 소비에 있어 제 2의 도약 단계를 맞이하는 첫해가 됨은 물론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소비 창출의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

조그마한 계란하나

우리건강 지켜준다